

폐기물 처리난·악취 행정이 자초

도감사위 생활폐기물 관리실태 성과 감사 결과 통계 작성엔 오류... 처리 과정 메뉴얼도 안지켜 양 행정시에 시정·주의·통보 등 총 22건 행정처분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문제와 악취 문제의 '주범'으로 담당 행정당국이 지목받고 있다. 도내 수만의 폐기물이 행정의 통계 작성 오류로 잘못 분류되거나, 폐기물 처리 공법을 메뉴얼대로 이행하지 않아 악취 문제를 초래한 점 등이 감사위 조사 결과 무더기로 드러나서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한 생활폐기물 관리실태 성과 감사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제주도 양 행정시에 시정·주의·통보 등 총 22건의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우선 제주시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메뉴얼에 담긴 방식

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악취 문제를 초래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감사위에 따르면, 제주도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경우 초과 반입 물량의 경우에만 '소멸화 공법'을 통해 수탁자에게 처리하도록 해야 하지만, 실제로 반입 물량 전체를 자체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한 뒤 소멸화 시설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했다. 그 결과 소멸화 시설이 무리한 물량을 처리하게 돼 악취 문제가 장기간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감사위는 판단했다.

서귀포시의 경우에도 탈리액 처리시설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 고농도의 음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냄에 따라 하수처리장 운영에 곤란을 초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 성과를 과대평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 결과 제주시는 2019년 기준 누락수치를 포함할 경우 전년 대비 발생량이 일일 24.8t 증가했지만 4.4t만 증가한 것으로, 감량 실적은 하루 5.5t인데도 24.8t인 것으로 성과가 과대평가됐다.

아울러 도내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자료를 엉터리로 작성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 결과 제주시는 2019년 사업장폐기물 전체 물량 가운데 22.5%에 해당하는 폐기물 5만6407t을, 서귀포시는 전체 물량 중 5.16% 5498t을 잘못 분류한 채 통계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역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 집계만 하는 방식으로 통계 자료를 작성해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 감사위는 폐기물 발생량 통계가 낮게 잡혀 정책 성과와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제주시 7월 기준 4076필지 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제주시는 9월 24일까지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지목 변경 등 이동이 있는 토지 총 4076필지다. 이는 분할 2881필지, 지목 변경 661필지, 합병 452필지, 등록 전환 등 기타 82필지로 나뉜다.



수능 앞뒀 마지막 모의고사 11월 17일 시행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을 앞두고 31일 제주제일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수능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다. 이상국기자

서귀포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100억

남원읍 17건·12억 최다

2023년도 서귀포시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191건·100억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지난 30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에 관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조정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2023년도 제안

된 사업은 264건·168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조정협의회 심사를 통해 191건·1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선정됐다. 읍면동에서는 남원읍이 17건·12억원으로 가장 많다.

시 조정협의회는 선정된 사업을 제주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제출할 예정이다. 심사와 온라인 도민 투표를 거쳐 10월 중순 사업 규모가 최종 결정된다. 백금탁기자

2022 제주애 빠지다 12 제주고 야구부 박재현 감독

“모든 아이가 그라운드에서 꿈 키우길”

한 통의 전화가 계기가 됐다. “제주고 감독으로 와 줄 수 없겠냐”는 제안이었다. 아마추어 야구부 코치로 시작해 케이티 위즈(KT Wiz), 삼성 라이온즈 같은 프로 야구단에 몸담았던 그에겐 쉽지 않았을 선택이었다. ‘해체 위기’라는 말이 따라붙고 선수가 10명 뿐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도 결정까지 10분이 채 안 걸렸다. 이전에 비하면 분명 “최악의 조건”이었지만 그에겐 감독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지난해 3월부터 제주고 야구부를 이끌고 있는 박재현(50·사진) 감독의 이야기다.



제주고 야구부를 이끌고 있는 박재현 감독이 학교 야구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는 '제주 야구'가 자립할 수 있는 선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은기자

프로야구단 코치서 제주고 감독으로 또 다른 시작 열약한 시설 손보고 분위기 바꾸며 기적 같은 첫 승 “야구부 연계 육성 등 ‘제주야구’ 자립 선순환 필요”

감독이 돼 마주한 제주고의 상황은 생각보다 더 열악했다. 대학 야구부 코치 때 전지훈련으로 찾은 적이 있었지만 야구장 시설부터 손봐야 할 곳이 많았다. 그때부터 학교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바꿔 나가기 시작했다. 흠으로 덮여 있던 외야에 천연잔디를 깔고 다 닦은 펜스도 새롭게 교체했다. 박 감독은 “이제는 야구장 형태가 갖춰졌다”며 “휴대폰으로 찍어둔 사진에 모든 역사가 담겨 있다”며 웃었다.

분위기도 바뀌어 했다. 선수들은 적은 수에 제대로 된 훈련조차 못해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였다. 박 감독은 “투수가 타자도 하고 수비도 나가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 떠올렸다. 경기 성격보다 선수들이 경기에 나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중요했다. 2000년부터 지도자 생활을 하며 ‘스파르타식’ 훈련에 익숙한 그였지만 다그치지 않았다. 선수들이 먹고 입는 것부터 신경 쓰며 표정과 움직임을 살폈다. 아이들이 주눅들지 않도록 ‘긍정의 말’을 쓰겠다는 다짐도 더했다.

훈련 환경과 분위기가 만들어지니 선수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전혀 생각지 않던, 기적 같은

‘첫 승’도 찾아왔다. 지난해 5월 29일 ‘2021 고교주말리그’ 첫 경기에서다. 제주고에겐 1049일 만에 41연패를 끝내는 값진 승리였다. 박 감독이 온 지 약 3개월 만의 일이었다.

제주고는 한 해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다. 현재는 선수도 22명으로 늘었다. 다른 지역 고교 야구부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숫자이지만 이제야 비로소 선수마다 전문 포지션을 가지게 됐다. 프로야구 30년 경력의 조규제 코치와 야구선수 출신의 김선현 코치, 학교와 학부모 모두 든든한 힘을 길러주는 게 중요했다. 박 감독은 “올해 지금까지 4승을 거뒀다”며 “제주 야구의 제2의 전성기가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제주에 온 지 2년이 채 안 됐지만 그는 “제주사람이 다 됐다”고 했다. 지역 특유의 연고주의에 상처도 많았지만 언제부턴가 섬을 떠났다 돌아올 때면 제주

품이 더없이 편하다. 학교 야구장 위로 시시각각 변하는 제주의 하늘은 숨가쁜 일상에 위안이다.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이어지는 학교 업무와 선수 지도, 주말 연습 경기까지 매일이 바쁘지만 제주는 새로운 바람을 품게 한다.

“프로야구 선수 중에는 제주 출신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초·중학교 때 육지로 나간 선수들이죠. 제주에선 크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주 안에서 좋은 선수를 키우고 이들이 프로 무대에서 잘 성장해 다시 제주에 지원군이다. 이 모든 게 맞물려 돌아가며 ‘전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박 감독은 “올해 지금까지 4승을 거뒀다”며 “제주 야구의 제2의 전성기가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제주에 온 지 2년이 채 안 됐지만 그는 “제주사람이 다 됐다”고 했다. 지역 특유의 연고주의에 상처도 많았지만 언제부턴가 섬을 떠났다 돌아올 때면 제주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제22회 전국 추사 서예·문인화 대회

※ 코로나19로 인해 회화대회를 비대면 공모전으로 전환 개최합니다.

- 참가부문:** 한문, 한글, 문인화, 서각
- 작품규격:** 한문, 한글, 문인화: 70×135cm(전지), 35×135cm(2절지) 서각: 가로 70×140cm이내
- 참가신청 및 문의**
 - 원서 교부: 2022년 9월 1일~9월 29일 (제주서예학회 카페(cafe.daum.net/jejudoshufa) 다운로드)
 - 작품 접수
 - (1) 접수: 2022년 9월 29일(목) 오전 10시~오후 6시
 - (2) 우편 접수: 2022년 9월 29일(목)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접수 마감 시간 이후의 도착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접수 장소: (사)제주특별자치도서예학회 사무실(제주시 오남로 6길24(2층)) ☎(064)744-4959, 010-3810-9450. Fax.(064)744-4958
- 출품료:** 없음
- 출품수:** 1인 1점 한함
- 명제:** 없음(자유)
- 시상 내용**
 - 종합 대상(1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패 및 상금 3백만원
 - 부문별(한문, 한글, 문인화, 서각) 대상(4명): 서귀포시장 상패 및 상금 1백만원
 - 우수상(한문, 한글, 문인화, 서각)(8명): 제주특별자치도서예학회 이사장 상장 및 상금 30만원
 - 특선 및 입선: 제주특별자치도서예학회 이사장 상장

공모전

조선 후기 명필인 추사 김정희선생의 추사체 완결지 및 불후의 명작 세한도의 탄생지로서 그의 손결한 예술정신을 기리고 제주도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널리 알리며 전통 문화 계승 발전을 근간으로 새로운 문예부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22회 전국추사서예문인화회화대회(공모전)를 개최합니다.

- 심사 및 발표**
 - (1) 심사: 2022년 10월 1일(토)
 - (2) 발표: 2022년 10월 4일(화). 본 학회 카페(cafe.daum.net/jejudoshufa) 및 개별 통보
- 시상식 및 전시**
 - (1) 시상식: 2022년 10월 29일(토) 오후 5시, 문예회관 제1전시실
 - (2) 전 시: 2022년 10월 29일(토)~11월 3일(목), 문예회관 제1,2전시실
 - ※ 표구비는 본인 부담이며, 미표구시는 낙선 처리합니다. 또한, 이후 3년간 출품 제한합니다.
 - ※ 상장은 시상식 당일 시상식장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작품 반출:** 낙선작은 심사 발표 후 3일 이내 직접 반출 가능 전시 작품은 11월 3일(목) 오후 4~5시 반출함.
- ※ 작품 반출 시간 이후의 미반출 작품에 대해서는 본 학회에서 분실 또는 파손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초대작가제도:** 소정의 접수(15점)을 이우하면 본 대회 초대작가로 추대함. (중합대상8, 대상6, 우수4, 특선3, 입선1)

- 주 최: (사)제주특별자치도서예학회
- 주 관: 제22회 전국추사서예문인화회화대회 운영위원회
- 후 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서예학회

아름다운 노후! 일하는 노후! 행복한 노후!

‘핸드메이드 공방 교실’ 수강생 모집

제주시니어클럽 은빛마을학교에서는 공방에 손기술을 가진 분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지원 바랍니다.

모집구분

교육명	교육기간	모집인원
핸드메이드 공방 교실	2022. 09. 19. ~ 09. 30. 총 10회	총 20명

모집세부내용

바느질공방	뜨개질공방	자수공방
10명	5명	5명

- **신청대상:** 만 60세 이상 관련 손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
- **신청기간:** 2022. 08. 30(화) ~ 09. 08(목) 09:00 ~ 18:00 (공휴일 및 평일 점심시간 신청불가)
- **신청방법:** 제주시니어클럽 (방문접수)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 (구, 상록화관)
- **제출서류:** 노인일자리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문의전화:** 064-745-3999

※ 기타: 해당과정 종료 후 노인일자리 참여기회
※ 교육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섬나기
제주시니어클럽